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6차 세션, 교회 안에서의 연합, 골로새서 3장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교회의 연합, 골로새서 3장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옥서신의 기본적인 서론을 살펴보았고, 이전 강의에서 1장을 다루었고, 1장의 핵심 내용인 인사를 다루었고, 기도와 감사를 살펴보았고, 그 장의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장의 끝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대한 주석을 집어들면, 주석가들이 2장, 1절에서 5절이 1장의 끝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의 문단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을 때, 저는 또한 그것을 별도의 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본질 또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갔고, 저는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더글러스 무가 처음으로 그 표현을 사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7절에서 보는 부분인데,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고,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기초가 거짓된 가르침과 교회 내 활동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 3장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의 기초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명령은 그들이 들은 것 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의 주의를 흥미로운 대조 패턴으로 이끌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손에 넣기 시작할 때 입거나 모자로 써야 할 무언가 , 예를 들어 천상과 지상의 대조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내리고 살리라는 부름. 옛 것과 새 것의 대조.

당신은 아마도 내가 해골과 어린아이가 있는 흥미로운 이미지로 당신의 주의를 끌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든 남자와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무엇이 죽여야 하고 벗겨져야 하는지에 당신의 주의를 끌었고, 어떤 것들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고, 벗겨야 할 것들은 분노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직후에 저는 또한 이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죽여야 할 것을 죽이거나 벗길 때, 민족성, 인종,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근거한 구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마도 스키타이인에 대한 것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가장 존중받거나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문화적 규범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억압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아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특정한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책임에 대한 부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화면에 놓은 차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끝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하고, 추구하고, 사랑이 우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군림하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고대 세계의 중요한 미덕, 감사의 미덕을 개발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라는 부름을 받는 이러한 상호 책임으로 부름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7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17절까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말로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에게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상호 지원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신, 훌륭한 교사들을 데려오고, 이 땅의 위대한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앉아서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가르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는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혜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훈계에 대한 부분에서 그는 그들이 노래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처럼 노래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면 시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노래하기 시작하면, 글썄요, 아마 개구리 무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가끔은 리듬과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를 하지 않으니, 노래하도록 격려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래할 때에도 서로 권면하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와 상호 지원의 감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실제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 일부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방화벽을 구축하거나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해소하거나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 지원, 가르침, 서로를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제가 큰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모든 것, 즉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말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말투로 당신의 말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행동에서, 그가 우리에게 옷을 벗고 뭔가를 입으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실 우리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봅시다. 이름이라는 단어.

여기서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의미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명성이나 면허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성을 지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훨씬 넘어설 때, 우리는 실제로 그 결과로 그에게 나쁜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이나 행동으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3장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현대 가족과 달리 고대 가족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상상해보세요. 또한 노예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남자를 포함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 집에서 아내로서 여자와 함께 태어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 제도가 고대 세계에서 매우,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예 제도라는 주제에 대해 그렇게 짜증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 제도는 사회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고, 나중에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알려지게 된 노예 제도라는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나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노예 제도의 역사로 마음을 돌리지 맙시다.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이 토론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제가 몇 가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훈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이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이제 17절에서 그가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집에서의 삶이 살아지도록 훈계를 받을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 말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글썄요, 우리는 여성을 먼저 말하고 싶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풀은 그것을 경청한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성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로 시작합니다. 그리스어로 아내입니다. 그런 다음 많은 여성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단어인 s 단어인 복종으로 계속합니다. 여성, 복종.

그리고 당신이 오늘날 남편이라면, 8절의 첫 줄만 읽고,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제가 화면에 보여준 것과 같은 그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복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 여성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수업마다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떤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영어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종을 요구하는 말은 누군가가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아내를 부르고 있으며, 이 단어는 여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여자나 아내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다면, 그리스어 단어도 여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여자로 번역하면, 글썄요, 숙녀분들은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거기에 있고, 여자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니, 여자여,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당신을 부르고, 두드리고, 복종하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도움이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가 “제출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한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집에 교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교제를 위해 거기에 온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싸운다. 아이들은 집에서 온갖 소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고 싶어하는 명성을 보여주거나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복종하세요.

하지만 남편에게 성경이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상기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콜로새에서 바울의 청중에게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이 복종과 지시가 콜로새서와 나중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이것을 보고 앉아서, 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면, 아마 그것에 대해 편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썄요, 이것은 남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여자에게는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복종의 근거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합의된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복종한다면, 당신은 주님께 합당한 복종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자 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당신을 억압하려는 어떤 남자 인물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당신을 잔소리하려는 당신의 남편에게는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께는 합당합니다. 복종의 마음은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이 언어의 본질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반드시 쇼를 통제하지 않는 프레임워크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당신은 그것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힘의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적 역동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준은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꽃은 진정한 사랑이 꽃을 주는 틀이 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나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여성에게 꽃을 사는 것이 제가 자란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인 아내를 만났고, 우리가 사귀던 시절에는 저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친구가 있어, 댄, 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 꽃을 사라고. 나는 안 돼, 집에 돌아가면 그냥 뒤로 가서 꽃을 꺾으면 된다고 말했어.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잘라서 주면 되고,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꽃은 심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를 위해 꽃을 사기 시작했을 때, 그게 그녀에게는 중요하지만, 내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끔씩, 특히 손님이 와서 꽃을 가져왔을 때,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아내에게 한 지시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가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읽어봅시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정의 수장일 수 있지만,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측정된 태도를 갖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결코 가혹한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표준에 맞춰 사랑합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대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적인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에 대한 상호 책임은 이제 3장에서 앞서 보았듯이 교회에서 이 부분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는 이 상호 지원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가족의 미시적 수준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이 글을 소리 내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합당한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S-word가 마음에 드시나요? 야, 남편들이여,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저 낭만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회가 남편-아내 역학 관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기시켜 드리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의 본질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책인 아피아누스에 대한 반박에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편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남편이 그녀를 학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가 결혼한 아내와만 잠자리를 같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처벌이다. 다른 여자와 약혼한 처녀를 강요하거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유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법은 우리에게 모든 자손을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여성이 태어난 것을 낙태하거나 그 후에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녀는 살아있는 생물을 파괴하고 인류를 쇠퇴시킴으로써 아이를 살해한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런 간음이나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저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것에 만족하고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돈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 남편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제한만 있는 이 역할을 한다.

반면에 바울은 여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권력이나 이러한 자제력을 보이지 않고 실제로 사랑을 보이는데,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알고 싶다면, 이것은 바울 시대에 만들어진 유대인적 틀입니다. 또한 당시 철학자들이 이 관계와 관계의 역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다면 데모스테네스의 글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데모스테네스 연설 59에서 그는 한 여자와 한 아내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썼습니다.

그녀에게서 아이를 낳고 아들들을 씨족과 부인의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딸들을 남편에게 약혼시켜 한 사람의 아내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여주인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매일 돌보기 위한 첩. 하지만 합법적인 자녀로서 낳고 우리 가정의 충실한 보호자가 되는 아내. 와, 이건 전형적인 그리스 스타일이네요.

당신은 아내를 가질 수 있고, 아내의 허락을 받으면 여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첩을 데려와 집에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첩과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내는 그것을 알겠지만, 그 첩의 아이는 사생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아내가 되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글썄요, 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실제로 결혼을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제한하고, 관계도 그 한 사람에게만 제한할 것입니다. 그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혹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데 가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아이들에게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바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라. 이것의 배경은 아마도 고대 지중해 문화에 대한 몇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가정에는 남편, 아내, 자녀, 노예를 포함하여 약 20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전반적인 수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또한 고대 문화에서 명예와 수치의 비공식적인 규범이라고 부르는 문화의 일부를 이해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가족에서 가족의 명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더 많은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어린 여성이 있고 누군가가 그들을 성적으로 침해하면, 그것은 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오고, 가정의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정의 명예는 취약해집니다.

바로 이런 틀 속에서 바울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콜로새서에서 흥미로운 단어 전환입니다.

주의하세요, 순종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이들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관습적으로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징계를 담당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는 아이들, 아이들, 사회 복지사들이 누군가를 쫓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신체적 처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부 문화권에서도,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책임 중 일부는 규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쁜 짓을 할 때, 그리고 당신이 아이일 때, 엄마는 당신에게, 아빠가 오면 말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당신은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뇌물로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당신을 징계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골라내어 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비통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이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틀, 즉 그리스도인 가족에게 적합한 것을 구성하는 틀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내가 복종할 때 아내에게 학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와 집안을 지배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 때, 그는 실제로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인 모드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권한과 통제를 제한하여, 이 아이들을 비통하게 만들지 말라, 낙담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들었습니다. 징계를 담당하는 아버지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압니다. 이제 바울은 노예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곧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의 평균적인 도시, 바울 시대에, 대부분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인구의 30~30%가 노예로 구성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틀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바울이 22절에서 주는 다음 지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기업을 알므로 너희가 섬기는 이는 주 예수라.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에 대하여 갚음을 받을 것이요 편애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는 주인들에게로 돌아선다. 주인들이여, 당신의 노예들에게 옳고 공평한 것을 제공하라. 왜냐하면 당신도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노예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서 몇 가지 요점을 제시하겠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노예 제도는 다양한 현상이었습니다. 사적 노예는 큰 비참함 속에서, 바닥을 갈거나, 사슬에 묶이거나, 제분소에서 일하거나, 비교적 번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 이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모든 이익은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적 노예는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정부 관리가 될 수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의 하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장자 플리니는 당시의 노예 제도를 설명했고, 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바울의 시대입니다. 날짜를 주목하세요. 이 같은 땅은 노예들이 수고하고, 다리는 사슬에 묶이고, 범죄자들의 손과 얼굴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

한 학자는 최근에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물론 모든 노예가 그렇게 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노예에 대한 구타, 채찍질, 지팡이질, 처형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종종 문화적인 언급은 고대 노예의 어둡고 절망적인 존재에 대한 목소리 있는 증언을 구성합니다.

신체적 처벌에 대한 의존은 부분적으로 노예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양도할 돈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와 같은 평균적인 도시는 인구의 30-35%가 노예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베르사유는 더 작은 도시였지만, 비율 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야망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구가 5,000명인 도시에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회에 만연한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초기 교회가 노예 제도의 사회적 구조를 바꾸려고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대하는 방식이 적어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대하는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훈계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 노예 제도가 실제로 의무, 종교적 의무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약 윤리에 대한 대화에서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지지되거나 금지된 것과 현대에 권장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구체적으로 동성애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던 사람은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가 노예를 찾지 않고 노예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에 대해 재빨리 질문했습니다.

저는 답장으로 간단히 대답했고, 콜로새서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처럼 사회 구조에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일부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노예 제도를 사회 구조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정죄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윤리적 문제의 복잡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의 전통적 부분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언어를 보세요. 주인이 등을 대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내의 지시, 남편의 지시에 대해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노예들은 스스로 어떤 기독교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저 지상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그가 주인이나 노예의 주인에 대해 말할 때 언어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둘 다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다시피, 당신은 여기 위에 있는 주인에게서 온 청지기이고, 당신이 노예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의 주인은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을 감독하여 그가 옳은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더 높은 주인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책임감 있게 일하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콜로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콜로새서에 학대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훌륭한 글이 아닐지 몰라도, 노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주인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순종하여 그들을 방어하는 마음으로. 신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노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온 마음을 다해 일하십시오. 토론 초반에 제가 심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감정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 이성의 중심, 감정의 자리, 의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면 온 정신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당신이 당신의 썩어가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

당신은 인간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살펴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서 상속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예에게 선행에 대한 보상을 줄 사람은 주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특정 구절이 특히 19세기에 노예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일부 지역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험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사람들을 학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실제로 가정의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만나는 장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실제로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장소입니다.

그럼, 그가 주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주인 여러분, 여러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살 때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한 가지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주인님, 당신은 노예들에게 올바르고 공평한 것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주인은 노예를 공평하게 대하는 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주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부하를 대하고 CCTV나 카메라 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당신이 하는 일을 공정하고 정당한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부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제 생각에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공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친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양심으로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부하 직원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이 맥락에서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4장 1절에서 노예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르는 것도 이 맥락에서입니다. 그는 4장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로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한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여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여라. 내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분명히 알리도록 하여라.

외부인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항상 은혜롭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접근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3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이 토론에서 전개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호 책임과 강한 일체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체감은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개별 가정의 내부 활동이 더 넓은 교회의 일체감과 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족적 배경에서 언급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에 있고,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에 있고, 집안의 종들이 주인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들이 모두 만날 때, 다양한 가족들이 집에서 만나고,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3장의 마지막 구절과 그가 설명하는 주요 미덕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아버지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노예들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인들이여, 여러분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의 천상의 주인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공평하게 보상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보면, 그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에 대항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를 구축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매우 강력한 관계 구축 사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무엇이 계속해서 떠오르는지 주목하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세요. 주님이 중심이 되세요.

그것은 주님께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증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심지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실제로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을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 아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1장은 어둠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콜로새서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위해 뭔가 제안해 드릴까요? 지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들고 콜로새서 1장, 2장, 3장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살펴보세요.

마무리에 다다르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침투,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하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함께 멋진 공부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6번째 세션, 교회의 연합, 골로새서 3장입니다.